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7
----------	------

발의연월일 : 2024. 7. 15.

발 의 자 : 강대식 · 권영세 · 임종득
김예지 · 구자근 · 이인선
김용태 · 강승규 · 박상웅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과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u> 」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